

# 생태수도 순천시 올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 연다

순천만정원 상반기에만 447만명 방문  
선암사·낙안읍성·와온해변 노을 등  
감성있는 스토리 여행 알리기 박차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한 순천시가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1000만명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3일까지 300만명의 방문객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등 상반기에만 447만명이 순천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799만여 명이 순천을 관광했다.

시는 지난 2017년 906만명의 관광객이 왔었고, 올해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각종 행사를 치를 예정이어서 1000만명 관광객 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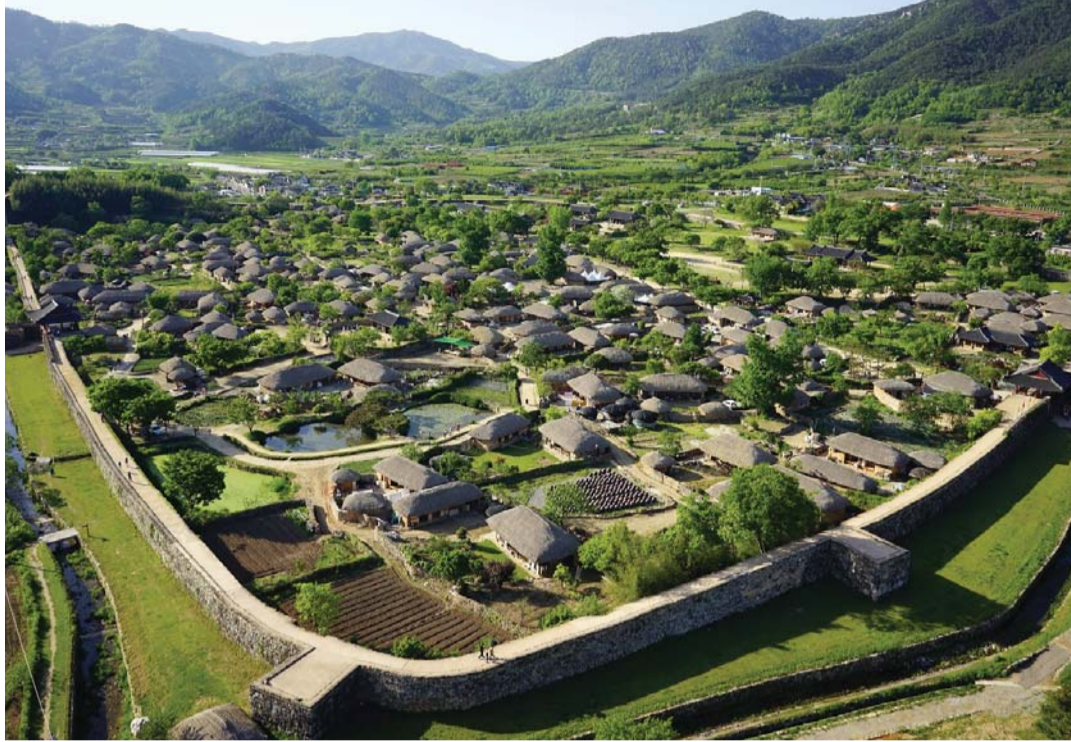
순천만은 1990년대만 해도 순천을 가로지르는 동천 하구와 갈대밭이 이어진 곳으로 갯벌 생물이 살던 터전이었다.

그 후 순천만 하구는 버려진 채 방치됐고 1993년 민간업체의 굴재 채취사업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순천만의 갈대숲을 보전하려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결국 사업이 중단됐고 1996년 본격적인 생태조사가 시작됐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가 인정돼 굴재채취 사업은 결국 취소됐고 2003년 해양수산부 갯벌 습지보호 구역 제3호로 지정됐다.

2006년에는 국내 연안 습지로는 처음으로 습지에 관한 국제 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해 국내외



낙안읍성

에 알려졌다.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도 1996년 처음 발견된 이후 개체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2176마리가 찾았다.

순천 선암사는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선암사와 함께 16국사를 비롯해 고승대덕을 배출한 승보종찰 송광사는 한국의 삼보사찰로 불린다. 사적 제302호로 지정된 낙안읍성은 마을 전체가

조선 시대의 모습을 잘 간직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초가지붕과 킷마루, 토방과 섬돌, 가마솥 걸린 부엌 등 국내 최초로 읍성과 마을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됐다.

조선 시대 성과 동헌, 객사, 초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낮에 둘러봤다면 와온 해변으로 가서 노을을 봐야 한다.



와온해변 노을

썰물이 지나간 와온 갯벌에는 어머니의 거친 손등처럼 삶의 흔적이 새겨지고, 붉은 석양이 부드럽게 감싼다.

수면 위로 흑두루미와 기러기, 청둥오리가 먹이를 찾아 날아오르고 주변은 고요한 정적에 휩싸인다.

순천은 도시라기보다는 자연 그 자체이다.

순천만 습지를 중심으로 순천시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최종 지정 승인됐고, 국내 연안 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

됐다.

생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아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7개국 1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람사르 습지 도시 지자체장 네트워크도 열린다.

허석 순천시장은 "우리 시는 풍부한 생태관광 자원으로 감성 있는 스토리 여행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음식, 즐길 거리, 볼거리 등 부족함이 없는 순천으로 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 상수도 분야 4회 연속 최고등급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순천시가 '201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수도 분야에서 4회 연속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향후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최우수기관 인증패와 포상금 등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순천시는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수도 111개 기관 평가에서 '가' 등급(26개 기관)을 받아 4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으며, 전남도 시군 평가기관중에서는 순천이 유일하게 '가'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8개반 85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정책준수 등 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의 점수를 매겨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했다.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올해 경영평가에서는 안전·윤리·친환경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 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평가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경영성과도 우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보여준 지방공기업이 각 유형별 상위 '가' 등급을 부여 받았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 순천시 새 폐기물 매립장 조성 9월 2일까지 부지 공개 모집

순천시가 부족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9월 2일까지 60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후보지는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 이상 찬성과 토지소유자 8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은 지역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희망 지역은 공고일 기준 세대주의 80% 이상 동의서와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청 청소자원과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시는 공모 기간 동안 유치 의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진 처리시설 시찰을 비롯해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신규시설의 예상규모는 매립시설 조성면적 5만㎡, 소각시설 일일 200t, 재활용선별시설 일일 60t 내외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놓고 갈등

시민단체 해임 촉구해 자원봉사단체협 회장단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채용 취소 통보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임을 촉구하자 지역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순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순천시를 본연로 이끄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법무부 산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10년 이상 재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봉사활동으로 국무총리상 등 많은 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자격 요건 논란에 대해선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로 순천시에 등록이 안 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형식에만 치우쳐, 자원봉사

단체 등록 여부가 전부인 양 센터장이 부정과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봉사를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지역 토착 비리 등 기동 점검 결과 순천시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채용했다며 업무처리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센터장 채용 취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A씨가 과거 일했던 자원봉사센터는 광역 자치단체에 등록돼 있지 않아 A씨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순천지역 2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허석 시장은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을 즉각 해임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순천=차성환 기자 csh@kwangju.co.kr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 으로  
오세요!

순창이 참 좋단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eon

사色 오感